

예수교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 목사 **이 재 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믿고 순종하는 교회

전 교인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항상 기도제목

- 1) 위임목사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3) 구제

■ 2022년도 기도제목

- 1) 불가능이 없는 믿음 (마가복음 9:23)
- 2) 거룩한 자녀 (데살로니가전서 4:3, 디모데전서 4:5)
- 3)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마태복음 21:12~13)
- 4) 재창조의 권능 100% (에스겔 37:4~10)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이수진(당회장 직무대행)
(남) 안성현 조대회 조혁희 조수열
주현철 정규원 김영식 장성식
정현천 이풍근 임학영 박광현
이석규 정진영 조성도 김성덕
노영진
(여) 이미경 최영자 이미영 이성숙

선교 목사/ 페르난도 보르본

협동 목사/ 문신현

전 도 사/ 김영순 권영남 차경숙 최영신
이영인 황미경 최성숙 서덕분
박금미 오인숙 곽윤진 윤영자
임금선 황미선 조은영 강순길
황금란 정영임 임해숙 문순미
장정미 류순주 고경아 최시은
김진주

평신도 교역자/ 김복례 권순희

기도원 교역자/ 김영식

지교회 교역자/ 문대규 정철수 이행업 박홍영
김요한 강승표 박형렬 박재영
최제수 서진범 김창숙 박종대
황병덕 오환준 김혜경 차찬환
강영식 이성철 윤진영 김정오
김상휘

해외선교사/ 아프리카: 정명호, 한진범, 김은주, 김종훈,
폴 무사파리 날완고(협력), 자코 네마 사카텐다(협력)
일 본: 정경태, 도끼꾸니 야스히로, 고마쯔 미끼, 도끼꾸니 미야고
중 남 미: 페루·콜롬비아 장영연, 온두라스 에스테인 할달
러 시 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미 국: 남상송
캐 나 다: 이성일
영 국: 제인 음폴로고마, 데이빗 무카사
독 일: 이바울
몰 도 바: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대 만: 김경희
필 리 핀: 조찬형, 성 숙, 김은자, 김주범
인 도: 김상휘
몽 골: 발자릭 푸레브, 안흐바야르 간바타르
말레이시아: 이정훈
인도네시아: 자바르 H 시라이트, 메르나 탐바
파키스탄: 윌슨 존 길, 타리크 지아
중 동: 보나 시투아탈라 은심바, 알렉산드르 우라조프

원로 장로/ 이정호
장 로/ 빈성건 이동립 최종태 이주월 추오동 이시헌 박광호 유익선 최정수
오세영 박영준 이기세 정안권 박노철 김왕기 박현재 박경준 최을호
김대석 성낙훈 김홍만 김규식 송왕국 김진홍 송석길 이강준 장영규
이익석 임영석 김종태 김용석 정택수 조휴용 윤성식 김기호 박홍열
박영갑 김봉완 홍영일 김준호 이강복 김용덕 윤창수 이재환 권대봉
채윤석 김석환 진교승 황병현 박성준 최병술 이덕행 최혁수 허은범
정태찬 고광규 임종서 서희석 신상문 정성규 김부삼 정성식 이상원
마문국 마수용 이용석 김한구 김순오 마문복 유승렬 손영락 윤부열
박중웅 송영현 이성의 정명호 정용필

명예 장로/ 김영선 김세원 윤석재 이교순 강재관 김영조 이성철 마광희 장세웅
서근중 최신일 한병용 나중규 이기완 한홍렬 김재규 한광현 심상식
오성준 하문복 허영욱 배철호 김영남 서상기 문경진 박진무

협동 장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정용채

지 휘 자/ 임마누엘 성가대: 김한구 살롬 성가대: 박중웅
나 사 렛 성가대: 이영철 금빛 성가대: 이영철
흰 들 성가대: 서승원 넋시오케스트라: 김한구

반 주 자/ 민연홍 김서영 이현미 손은혜 김선자(오르간) 김보석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주 악
기 원	사 회 자
* 개회찬송 36장 1절	다 같 이
* 성서교독 1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다 같 이
찬 송 41장	다 같 이
기 도	황금란 전도사
성경봉독 로마서 7:21~23	사 회 자
찬 양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았네/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2차 영혼육(14)	당회장님
기 도	다 같 이
환자기도 영상	당회장님
찬 송 만민 찬양 64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광 고	사 회 자
봉헌기도	사 회 자
새교우환영	사 회 자
* 축 도 영상	당회장님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예배

주일 오후 3시
사회/ 이석규 목사

대표기도	서덕분 전도사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2:15/ 사회자
찬양	내가 곧 길과 진리 생명/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송	여은진 자매
설교	그리스도의 향기/ 이수진 목사(당회장 직무대행)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박광현 목사

대표기도	김진주 전도사
성경봉독	사사기 16:26~30/ 사회자
찬양	금빛성가대
설교	전화위복의 새해/ 문신현 목사

금요 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사회/ 주현철 목사

대표기도	이영인 전도사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3:1~6/ 사회자
찬양	임마누엘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22)-사데 교회②, 일곱 영②/ 당회장님

2-8회 16차 다니엘 철야

시간/ 매일 오후 9시 ~ 11시 (금요일은 제외)
인도/ 이복남 원장
기간/ 1월 24일(월) ~ 2월 13일(주일)
주제/ 2022년 기도제목을 위해서

새벽 예배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자문에 협조하기 위하여 추후 공지 시 까지 새벽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주 예배 위원

예배	사회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장성식 목사	최영자 목사
주일 저녁예배	문신현 목사	김영순 전도사
수요 예배	노영진 목사	조은영 전도사
금요 철야예배	차전환 목사	박광현 목사

강단헌화
갤러리



제 목 : 2차 영혼육 (13)
 본 문 : 요한복음 3:5~7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작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 보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시피 합니다. 영과 혼, 영혼을 구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혼육의 말씀을 잘 양식 삼으면 사람의 마음은 물론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구원의 섭리도 더 밝히 깨달을 수 있으며 더 신속하게 성결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아담의 마음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마음은 곧 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아담에게는 생명의 씨가 있는 영 자체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영의 지식 곧 진리의 지식들이 채워졌지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지식들을 얻은 후에야 온전하게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도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대해 배우며 선과 진리, 빛과 같은 영의 지식을 습득함으로 영으로서의 구실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렇게 영 안에 영의 지식이 채워진 것이 바로 아담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마음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곧 영이기 때문에 영이라고 부르면 되었지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더 이상 영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곧 진리의 지식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비진리의 지식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더 이상 영이 아닌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 마음의 크기

사람들은 종종 마음의 크기에 따라 대인 또는 소인이라 표현하곤 하는데, 실제로 사람마다 마음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크기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빛과 소리로 온 우주에 가득하게 펼

쳐져 있었고, 또한 그 마음 안에 모든 우주가 품어져 있었지요. 그 우주 안에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도 만드셨고 육의 세상도 만드셨으며 지구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십니다. 무궁무진한 지식, 지혜, 권능,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그 크기가 어떠할까요?

원래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닮아서 무한하게 커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의 지식을 담아 주시는 만큼 한없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영이 죽은 후에는 혼적인 것들이 영을 감싸 버림으로 마음의 크기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영으로 무엇을 깨닫거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혼적인 작용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혼을 통해 어떤 지식을 얼마나 담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마음의 크기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지식, 틀로 생명의 씨를 감싸므로 혼적인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혼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눈앞의 것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먼 훗날까지 바라볼 줄 알고, 적은 유익에 연연하기보다는 더 큰 것을 생각합니다. 또 쉽게 감정이 요동하기보다는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사람은 비교적 마음이 크다 인정을 받으며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깃들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은 비교적 마음이 크다 해도 혼적인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는 사랑과 덕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그 마음 안에 깃들였으며, 그중에는 유비보다 지혜와 용맹이 뛰어난 사람도 많았지요. 그러나 그는 의형제를 맺은 관우가 죽임당하자 당장 원수를 갚으려고 서두르다가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육의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와 달리 영으로 마음이 큰 사람은 사랑과 덕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이 영적인 사랑이며 지혜와 명철, 인내와 절제 등도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3. 성령으로 영을 날아가는 만큼 커지는 마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으로 영을 날아가는 만큼 영적으로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비진리의 지식을 버리고 진리의 지식 곧 영의 지식을 채워 영으로 변화되는 만큼 마음이 무한하게 넓어질 수 있지요.

맨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의 마음은 천하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뿐 아니라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에덴동산에 살면서 낳은 수많은 후손들도 그 마음 안에 품어져 있었고, 영의 존재인 그룹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그가 에덴을

지킬 때는 원수 마귀 사단이 감히 넘보지 못할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만큼 마음이 커지고 영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또한 능력과 권세 등을 소유하게 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만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세계까지도 그 마음에 품어지기 때문에 육의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육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육의 사람들이 이렇게 영의 사람, 마음이 큰 사람들을 볼 때 마치 신(神)처럼 여기게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영의 세계의 크기는 무한하며 영의 사람만이 그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의 마음 또한 영의 사람만이 느끼며 알 수 있지요.

육에 있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기에 많은 판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을 때, 혹자는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산에 오르면서도 몇 번이고 되돌아오고 싶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한 아브라함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육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높은 차원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자기적인 기준에 맞춰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것처럼 엘리야도 그런 원망의 기도를 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었는데도 오히려 더 악을 발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심령이 상해서 이런 애통의 기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자신이 영의 마음을 이룬 만큼, 성령의 음성을 듣는 만큼 깨달을 수 있습니다(고전 2:15~16).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영의 마음을 가지면, 영의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육의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오해나 판단 정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진리 속에 제한된 육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의 한계 속에서 판단하며 자신의 좁은 마음 이상의 것을 헤아리기가 어렵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을 만날 때마다 얼굴을 굳히고 눈을 피하면서 급히 지나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신에게 감정과 미움, 혐기 등 육이 있는 만큼 상대를 판단하게 됩니다. “나한테 감정이 있나 보다” 하면서 자신도 상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지요.

그런데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판단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줍음이 많아서 어색해지는 것일 수도 있으며,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마음에서 정확한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영의 마음을 이룬 사람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 의 종이 얼마나 영의 마음, 큰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마음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깃들이게 되지요. 찌르고 부딪쳐 오는 양 떼, 육적인 양 떼라 해도 다 이해하고 참아 주고 넉넉히 품어 주니 자연히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터,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영으로 이뤄 마음을 넓히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고 지체도 능력도 커집니다. 더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으니 무엇을 하든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영의 마음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구성 성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선을 좇기 원하는 명백한 진리의 마음과, 명백하게 악한 비진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진리와 비진리의 비중이 다르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과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바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본성 속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데, 이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를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여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성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본성 속의 비진리를 발견하여 버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 사람이 좁아지거나 편벽되어진다고 오해를 하며, 술 담배를 끊으니 사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의 마음을 이루면 결코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넓어지며 모든 것을 마음에 품는 대로 이를 수 있습니다.

육의 사람들과 세상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서로 육의 것들을 주고받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으며 지배하고 다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고후 6:11~13).

또한 영의 마음을 이루면 곧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니(요 17:23)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그 축복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증거를 보일 수 있지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무한한 영의 지식들을 취해 나가심으로 세상 사람들같이 육의 한계 속에서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던 아담과 같이 넓고 큰 마음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과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

읽을 말씀 / 레위기 25:23~25

외울 말씀 / 로마서 5:19

참고 말씀 / 요한계시록 5:1~5

교육 내용 /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원수 마귀에게 넘겨준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영계의 법칙과 구세주가 되는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본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 가운데 영의 세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계의 법칙에는 죄인에게 벌을 가하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원수 마귀에게 넘겨준 권세를 회복하려면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영계의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칙에 따라 비밀한 가운데 인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과연 범죄한 아담이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영계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1. 토지를 사고파는 데 적용되는 토지 무르기 법칙

레위기 25장 23~25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관 것을 무를 것이요” 말씀합니다. 즉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영영히 팔지 말며, 가난하여 토지를 팔았어도 합당한 규정에 따라 다시 무를 수 있는 '토지 무르기 법칙'을 설명하였지요.

이스라엘에서는 계약서에 어떤 경로로 토지를 팔고 사는지 과정과,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토지 무르기의 내용을 기록하고, 팔고 사는 사람이 도장을 찍고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 후 계약서 1부는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여 성전 창고에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언제라도 볼 수 있게 성전 입구에 펼쳐 놓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근족이 와서 대신 토지를 무를 수 있고, 무를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부를 쌓아 힘이 있을 때 무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도 토지 무르기의 법칙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게 되었지만(눅 4:6), 토지 무르기 법칙에 따라 영영히 팔지는 못하며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토지 무르기 법칙에 합당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자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2.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조건과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5장 4절에는 하나님과 마귀가 계약한 책이 나옵니다. 이는 ‘아담이 불순종하여 마귀에게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넘겨주었지만, 이것을 무를 힘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다시 그 권세를 넘겨주겠다.’는 계약서이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 그 책을 일곱 인으로 봉하여 뿔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크게 울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이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 무르기 법칙에 따른 구세주의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즉 누군가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멸망의 길을 가던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 무르기 법칙에 의하면 돈이 없어 토지를 팔게 되더라도 그것을 되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무를 힘이 없을 때에는 근족이 대신 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한 아담이 원수 마귀에게 넘겨준 권세를 되찾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즉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토지 무르기 법칙 첫 번째 조건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둘째로,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지으니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구세주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담의 후예가 아닌 사람을 찾고자 하늘 위를 보니 천사만 있고, 땅 위를 살펴보니 아담의 후예인 죄인들만 있고, 땅 아래를 보니 지옥에 속한 것뿐이었기에 심히 애통하였습니다(계 5:1~3).

그러면 예수님은 토지 무르기 법칙 두 번째 조건에 합당한 분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남녀가 결혼하여 잉태된 분이 아닙니다. 단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가 아니며, 원죄가 없으므로 두 번째 조건에 합당하십니다.

셋째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빛을 갚아 주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여도 자신에게 그만큼 재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대속해 주려면 그만큼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므로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아담의 권세를 회복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수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서는 토지 무르기 세 번째 조건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33년 동안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셨으니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전혀 없으셨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온전한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전혀 죄가 없으므로 세 번째 조건에도 합당하십니다.

넷째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형이 아무리 부자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동생의 빛을 갚아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룻기 4장을 보면 보아스가 가난했던 나오미의 형편을 알고 가장 가까운 근족에게 기업 무르기를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근족은 자신이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토지 무르기를 거부하지요. 이렇게 근족이 기업을 무를 수 있는 힘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를 수 없습니다. 결국 나오미의 다음 근족인 보아스가 기업을 무를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랑도 있어서 그를 대신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크신 사랑이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 원수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로 되찾아 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각색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시고,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주시며 오직 선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온갖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마침내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인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행 4:12).

● 평가 및 적용하기

1. 토지 무르기 법칙에 합당한 구세주의 자격 조건을 써보세요.

첫째, ()이어야 한다.

둘째, ()의 후예가 아니어야 한다.

셋째,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있어야 한다.

넷째,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이 있어야 한다.

2. ()이란,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영영히 팔지 말며, 가난하여 토지를 팔았다 하더라도 합당한 규정에 따라 근족이나 본인이 다시 무를 수 있도록 하는 법칙을 말한다.

● 금주 과제

〈지난주 설교 요약, 구역공과〉 읽고 복습하기.

● 알고 넘어갑시다!

◆ 원죄와 자범죄

- 원죄: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 이후 모든 인류는 부모의 기를 통해 불순종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를 원죄라 한다.

- 자범죄: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한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 ☎ 1544-902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70-8240-2075)

설 명절 감사예배 순서와 예문

설날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음력을 사용하는 아시아권 나라들에게 일 년 중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력으로 1월 1일인 설날은 '묵은해를 떨쳐 버리고 새로 맞이하는 한해의 첫머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2022년, 새해에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 설 명절 감사예배 순서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278장 ----- 다 같이

1.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2.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3.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 -----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 로마서 12:20~21 ----- 인도자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설교 ----- 선으로 악을 이기자 ----- 설교자

2. 설교 예문

옛날에 아주 성격이 고약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칭찬은커녕 “이건 왜 이렇게 못했냐? 저건 왜 이렇게 해 났냐?” 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며느리는 급기야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참다 못해 며느리는 동네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시어머니가 빨리 죽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어르신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아주 어려운데 할수 있겠냐?” 하고 물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며느리에게 노인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물었지요. “인절미입니다.” 라고 답하자 노인은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인절미를 그날그날 만들어서 어머니께 극진히 대접해 드리게. 단, 조건이 있네. 한 달 동안 절대로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안 되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은 물론 딱까지 해서 드려야 하니 얼마나 몸이 곤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며느리는 시어머니 마음이 불편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날이 갈수록 마음을 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 혹여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는지, 필요한 건 없으신지, 뭘 더 해 드려야 어머니가 편하실는지, 온종일 어머니께 어떻게 하면 더 잘해 드릴까' 궁리하였지요.

시아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인절미를 정성껏 바치는 며느리의 행함에 마음 문이 열리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침이 마르도록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하였지요.

한 달이 끝나갈 무렵 이 방법을 알려 준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은 조짐이 좀 보이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러자 며느리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어르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절대 안 돼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 주시는데요. 세상에 저 같은 며느리 없다고 아껴 주세요.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로마서 12장 20~21절에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했습니다. 위의 며느리는 진리를 알아서 변화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었지요. 처음부터 어찌하든 마음을 담아서 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선을 행하다 보니 중심에서 우러나오게 되었고, 결국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진정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 먼저 선을 행해 보라고 하면 "왜 맨날 나만 손해 봐야 됩니까? 왜 나만 희생해야 되나요? 왜 나만 저 줘야 됩니까?" 반문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저주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단지 착해서 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이 바로 선의 힘입니다. 진정 마음 중심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손해 보고 희생해도 내가 손해 본다, 희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살리고 더 힘이 되어 줄까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성격, 내 취향, 내 마음에 맞는 편안한 사람들과만 지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나와 정반대의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도 함께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 학교, 교회 등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 안에서는 내가 싫다고 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자주 부딪히고 걸리는 사람을 통과하기 위해, 그 사람의 집안 애경사와 생일을 챙기고, 때때로 선물도 사 주며, 식사도 함께하는 등 마음을 맞추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대에게 무언가 더 주고 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을 행위적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선한 마음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다시 말해, 내가 선을 행하는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상대를 섬기는 마음,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평안하고 행복을 느껴야 하나 남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에는 향기가 있어서 아무리 작은 선의 행함이라도 향이 있는 반면, 아무리 깊고 큰 선이라도 그것이 이론에만 머무르면 향이 나지 않습니다. 선은 생각하고 연구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지요. 또한 선은 쌓으면 쌓을수록 더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선이 쌓이다 보면 다음에 더 큰 선이 나오고, 그렇게 쌓이다 보면 더 깊은 선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므로 작은 선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넉넉하고 포근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설날이 되면 새해의 풍요로운 수확과 가족의 건강과 마음의 소원을 막연히 신에게 빌었습니다. 또 음식을 차려 놓고 조상에게 절하며 제사를 지내기도 했지요. 그러나 돌아가신 조상이 와서 그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아무런 의미없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조상들은 비록 천국과 지옥에 대해 밝히 알지는 못했지만 사후 세계가 있음을 믿었기에 신을 찾고 기도를 하였습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참 신으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만나 주시고, 어떤 사고나 재앙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새해에는 마음 중심에서 믿고 의지하심으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 ----- 다 같이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1교구장	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134-130번지)
2교구장	권영남	구로구(가리봉동 00-133번지, 구로3동 125-252번지, 구로3동 1123-125, 1274번지)
3교구장	장정미	구로구(가리봉2동, 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256, 773-851, 1271, 1278-1279번지,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56
4교구장	최영신	구로구(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향동, 은수동, 궁동)
5교구장	이석규	영등포구
6교구장	류순주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7교구장	이성숙	금천구(가산동)
8교구장	김영순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9교구장	최영자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온사동, 옥길동)
10교구장	안성현	광명시(하인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11교구장	조은영	동작구(삼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대방동, 노량진동)
12교구장	임학영	동작구(신대방동, 신대방2동)
13교구장	정진영	관악구
14교구장	서덕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15교구장	문신현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6교구장	박금미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17교구장	차경숙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18교구장	황미경	안산시, 시흥시
19교구장	박광현	부천시
20교구장	이영인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21교구장	이풍근	인천시

중국대교구장: 황금란

중국1교구장	정규원	중국동포 구로구
중국2교구장	오인숙	중국동포 서울시(구로구 제외), 경기도
중국3교구장	윤영자	중국인
해외교구장	문신현	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님
문의전화/ 02-818-7102

※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예배는 없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 소식

- 당회장님의 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불어가 종이책으로 발간되었고, 「권능」이 포르투갈어로, 「십자가의 도」가 노르웨이어로, 「나의 삶 나의 신앙」이 루마니아어로, 「지옥」이 독일어로, 「일곱 교회」가 라트비아어로, 「천국(하)」가 포르투갈어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 신앙칼럼이 「기독교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만민뉴스 스페인어(289호), 불어(138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금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 설 명절 감사예배 순서와 예문이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주보 15페이지 참조)
※ 2월 6일(주일) 주보 광고는 설 연휴 관계로 오늘 오후 5시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림북/ 2월 추천도서는 「육의 사람 영의 사람(상)」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우림북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 당회장님 저서를(주보 맨 뒷장 참조)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드립니다.

강단헌화/ 해외 지교회(꽃꽃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시설관리국)

지성전	주 소	담당/연락처
강 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검 단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차경숙 전도사 010-2290-1856
부 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북 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문신현 목사 010-7736-9333
분 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세신빌딩 401호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이영인 전도사 010-4820-1700
안 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황미경 전도사 010-9636-7977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이 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 B/D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GCN,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1/30 일

- 00:00 - '요한일서 강해 22' 이재록 목사
- 05:00 - '이루리라하였으나 구하여야 하리라' 이수진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26' 이재록 목사
- 18:30 - '순종' 이미경 목사

1/31 일

- 01:00 -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2' 이수진 목사
- 07:05 - '창세기 강해 27' 이재록 목사
- 08:00 - '1차 영혼육 6' 이재록 목사
- 10:20 - '공간과 차원 2' 이재록 목사
- 13:00 - '십계명 1' 이재록 목사
- 19:30 - '우리 삶의 등불 116' 이재록 목사

2/1 화

- 01:00 - '죽어지는 밀알이 되자 1' 이수진 목사
- 07:05 - '창세기 강해 28' 이재록 목사
- 08:00 - '1차 영혼육 7' 이재록 목사
- 10:20 - '공간과 차원 3' 이재록 목사
- 14:00 - '요한일서 강해 23' 이재록 목사
- 15:30 - '마음발을 개간하자 5' 이재록 목사
- 18:00 - '이루리라하였으나 구하여야 하리라 2' 이수진 목사
- 19:00 - 구역공과 37

2/2 수

- 00:00 - '요한일서 강해 25' 이재록 목사
- 01:00 - '2차 영혼육 13'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05:00 -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리라' 이수진 목사
- 06:00 - '천국 27' 이재록 목사
- 13:00 - '십계명 3' 이재록 목사
- 15:30 - '마음발을 개간하자 6' 이재록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29' 이재록 목사
- 18:00 - '우리 삶의 등불 124' 이재록 목사

2/3 목

- 01:00 - '쌍주시는 아심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이수진 목사
- 07:05 - '창세기 강해 30' 이재록 목사
- 08:00 - '2차 영혼육 1' 이재록 목사
- 10:20 - '공간과 차원 5' 이재록 목사
- 13:00 - '십계명 4' 이재록 목사
- 15:00 - 천지창조의 섭리 33
- 15:30 - '마음발을 개간하자 7' 이재록 목사
- 19:40 - '요한일서 강해 42' 이수진 목사

2/4 금

- 08:00 - '2차 영혼육 2' 이재록 목사
- 12:05 - '천국 28' 이재록 목사
- 14:00 - '요한일서 강해 26' 이재록 목사
- 15:00 - 영적인 존재들 1
- 17:00 - '창세기 강해 31' 이재록 목사
- 20:40 - 필리핀 연합대성회 1

2/5 토

- 07:05 - '창세기 강해 32' 이재록 목사
- 10:00 - '영적 예배' 이재록 목사
- 12:05 - '천국 29' 이재록 목사
- 16:00 - 영적인 존재들 3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824-7107 / webmaster@gcntv.org)

✦ 유튜브 GCN방송 채널 및 KT olleh tv 882번 (HD채널, 별도 편성)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위성 A/S 문의 : 1577-2073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 10분
- 운전을 위한 기도_ 20분
- 3분 설교_ 30분
- 환자 기도_ 40분(한국어)41번(영어)42번(불어)43번(중국어)
- 찬양_ 50, 60분
- 하루를 마치는 기도_ 70분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KoreaSat5 위성방송, KT olleh tv 882번,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_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_ 오후 3시/ 수요일예배_ 오후 7시
금요일예배_ 오후 11시
다니엘 철야 기도회_ 매일 오후 9시
- ▶ 기타 녹화 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anmin.org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m.manmin.org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gcntv.org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m.gcntv.org

- Jan. 30(Sun.)

(1 Corinthians 3:16) “Do you not know that you are a temple of God and that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 Jan. 31(Mon.)

(1 Corinthians 3:17) “If any man destroys the temple of God, God will destroy him, for the temple of God is holy, and that is what you are.”

- Feb. 1(Tue.)

(1 Corinthians 4:1) “Let a man regard us in this manner, as servants of Christ and stewards of the mysteries of God.”

- Feb. 2(Wed.)

(1 Corinthians 4:2) “In this case, moreover, it is required of stewards that one be found trustworthy.”

- Feb. 3(Thu.)

(1 Corinthians 4:15) “For if you were to have countless tutors in Christ, yet you would not have many fathers, for in Christ Jesus I became your father through the gospel.”

- Feb. 4(Fri.)

(1 Corinthians 4:20) “For the kingdom of God does not consist in words but in power.”

- Feb. 5(Sat.)

(1 Corinthians 6:19) “Or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whom you have from God, and that you are not your own?”

금주의 성경구절

1월 30일(주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고전 3:16)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월 31일(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전 3:17)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2월 1일(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고전 4:1)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월 2일(수)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2)

2월 3일(목)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고전 4:15)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2월 4일(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전 4:20)

2월 5일(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고전 6:19)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 이재록 목사 간증 수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상·하)

지옥

영혼육 (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 (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하)/ 음기강해

요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눈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어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지혜/ 자기개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결과 권능 시리즈

(2주연속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임문편 1

내가 사행하리니/ 임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임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니/ 실천편 2

권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네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픔이 나의 빛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경 인물 시리즈 4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제설교 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 2. 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 3. 예배편

사랑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 4. 기도편

치료하는 영약도/ ... 5. 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 6. 심계명편

참된 복을 좇는 자/ ... 7. 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 8. 열재앙편

기이한 일

희한한 능

등불/ 칼럼 모음

자혜의 샘/ 장언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데스다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자혜의 샘 (상·하)/

사명과 헌신/ 헌신예배 설교 모음 1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갈옷을 내어 버리라/ ... 2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 3

옛새 동안의 만나 (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감추었던 만나 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 3

하나님은...!

2월 추천도서



하나님께로 가는

순전하긴 정직한 이야기



URIM BOOKS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집
갈릴리아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자순례 화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한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십자가의 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 (상)

이동용(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심계명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 도 ①, ②

선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위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설리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학생용(청소년 Bible Study)

젓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 도 ①, ②

만나Time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상!

선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

• 전자책 구입: 국내 주요 서점 리디북스, 아마존닷컴(amazon.com), Google Play, iBookstore

•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종이책 구입 가능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정기 예배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1부 대예배	오전 10:00	각 성전
주일 2부 대예배	오전 11:30	각 성전
주일 저녁 예배	오후 3:00	각 성전
빛과소금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9:00	각 성전, 북부·강동지성전
빛과소금 요식업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11:00	각 성전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00	각 성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00	각 성전
새벽예배	매 일 오전 5:00	각 성전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화요일 오후 8:30	각 성전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수요일 오후 9:00	각 성전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각 성전
아동주일학교(주일예배)	대예배/ 오전 11:40 저녁예배/ 오후 1:30	

※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시간 및 관련 문의 : 만민중앙교회 기획실 ☎ 02-818-7238